‘지지부진’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용 해법 찾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후활용위 첫 회의…전문가 11명 위촉장
내년 1월 기초조사 마무리…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0억 투입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로 바뀐 뒤 첫 ‘사후활용위원회’ 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성훈 차관 주재로 ‘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있는 여수시 덕충동·수정동 일원 79만8000㎡(엑스포역 15만㎡ 제외) 해양박람회 특구는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공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신규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시원 해수부 해양정책관,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김종기 여수시 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과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인준 ㈜산하종합기술 대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이상훈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위원장,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김규한 가톨릭관동대 교수, 박효연·최창호 전남대 교수,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성구 법무법인 세결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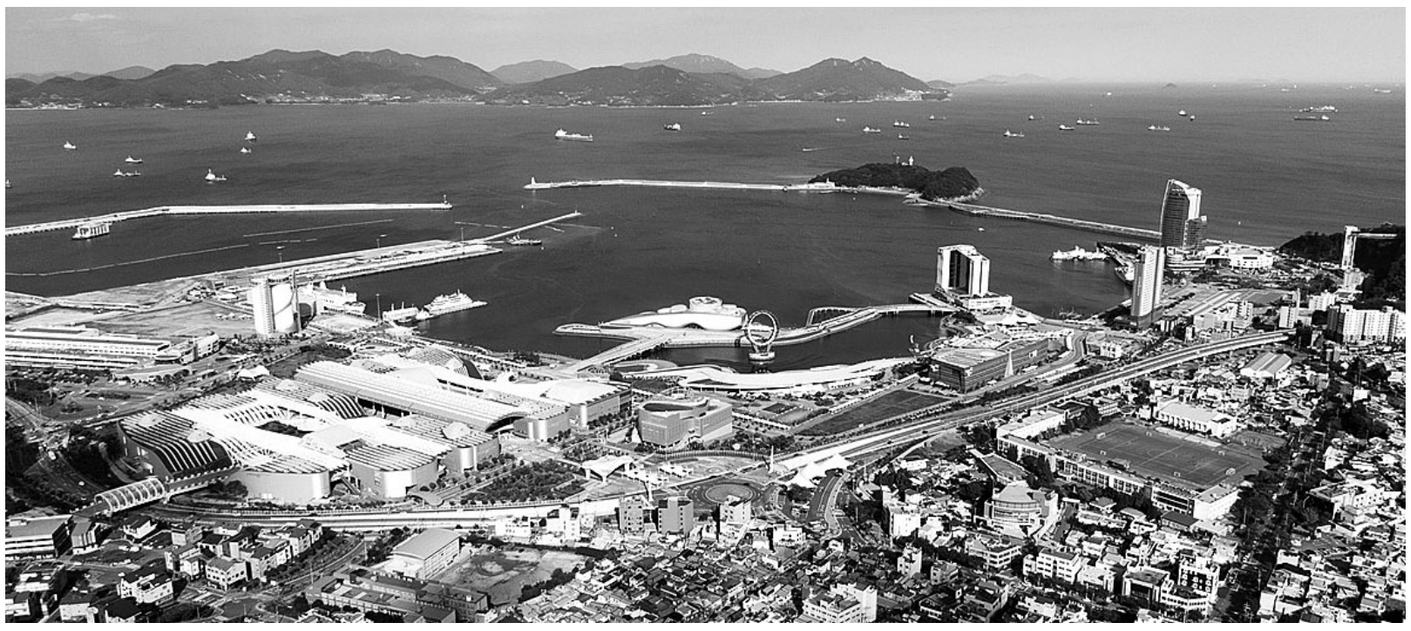
위원회는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기본 계획(로드맵)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업체는 오는 9월 선정된다. 내년 1월까지 기초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40년까지 범위를 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국비 10억원·지방비 10억원 등을 포함한 3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활용위원회는 오는 11월 두 번째 회의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연다. 위원들은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기초조사용역 중간보고를 받아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앞서 지난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민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사후활용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주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 5월부터 여수박람회장을 인수·운영하게 됐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682억원, 부채는 4657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4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박람회를 치른 뒤 이 일대에는 총 730실 규모 숙박시설 2곳을 유치하고,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성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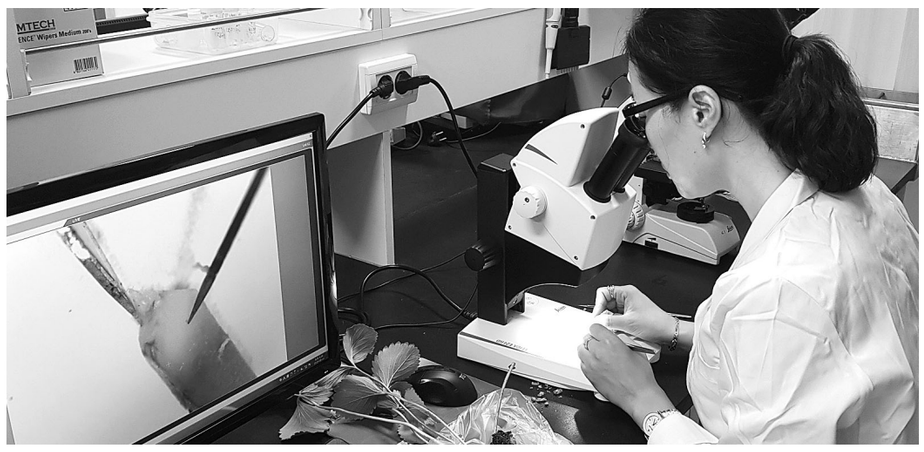
2013년 4월 박람회장을 재개장한 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확대하며 지난해에는 337만명이 찾아 70억원의 운영 수입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정부 예산이 축소되고 2021년에는 지원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시설 관리 비용 연 42억원(감가상각 연 190억원)에 대한 부담이 컸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15명)을 신설하고, 자회사 여수엑스포관리㈜를 설립해 고용 승계한 재단 인력 26명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딸기 농가에 생산 기술 지원

군, 모종 심을 적기 찾는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현미경을 활용해 딸기 꽃눈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아분화(花芽分化·꽃눈분화)는 꽃눈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현미경을 활용해 딸기 묘의 생장점을 관찰해 딸기의 꽃눈분화 상황을 확인한다.

보성군은 딸기 재배 농가가 딸기 모종을 심을 가장 적합한 시기를 찾을 예정이다.

검경을 희망하는 농가는 딸기 묘 3~5주를 무작위로 택해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에 찾아가면 된다.

미분화된 묘를 너무 빨리 심으면 꽃대 출현이 늦어져 수확이 지연될 수 있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출하하는 것이 좋다.

모종이 꽃눈 분화된 상태에서 내어다 심어야 11월부터 5월까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보성군에서는 총 329개 농가가 72ha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9연속 ‘1위’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

여수시가 제17회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여수시는 9년 연속 수상하며 이 분야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사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 받고 사랑받는 상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 브랜드 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평가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정했다. 이중 소비자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해양관광도시 부문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보석 같은 365개 섬이 펼쳐진 빼어난 해양경관, 풍성한 먹거리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 등 여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해양관광도시 부문 9년 연속 수상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에 ‘슈퍼 블루문’ 보러 가세…놓치면 14년

오늘밤 8시~10시 섬진강천문대
공개관측회…사진 촬영법 전수도

앞으로 14년 후에나 볼 수 있는 ‘슈퍼 블루문’을 관측할 수 있는 행사가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 열린다.

곡성군은 31일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 슈퍼 블루문 공개관측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슈퍼 블루문을 관측할 수 있다.

곡성섬진강천문대는 특별 강연과 보름달 인증 촬영공간, 천체투영실, 4차원(4D) 융합상영관 등을 운영한다.

휴대전화로 달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고 관련 유인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슈퍼 블루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인 근지점을 지나며 뜨는 ‘슈퍼문’과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블루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슈퍼 블루문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불과 35만 7344㎞까지 근접해 올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다. 이는 5년 만에 재연된 현상으로 다음 슈퍼 블루문은 14년 후인 2037년 1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한 슈퍼문(왼쪽)과 평소 달 모습. 〈곡성섬진강천문대 제공〉

이번 행사는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섬진강천문대 누리집(gokseong.go.kr/st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과학문화체험을 제공하고 특이 천문현상 관측을 경험할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침수 방지공사

폭우로 침수 피해 빈번…시, 예비비 5억원 투입

광양시는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일원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을 긴급 투입해 침수 방지공사를 추진한다.

마동정수장 남측도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극한 강우로 마동정수장 유역과 도로에서 유입되는 노면수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차량 통제에 따른 차량정체를 겪어왔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응급대책으로 우수관로(D300) 설치 공사를 마쳤다.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을 투입해 도로 개선 및 우수관로 신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공사를 착수해 10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광양시는 상습 침수구역인 홈플러스 사거리, 사랑병원 일원, 도촌교차로 등에 침수 방지공사를 마쳤다.

이달 현재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침수 방지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옥병 광양시 도로과장은 “시민들이 차량 침수와 교통정체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평생교육 축제서 ‘배움의 즐거움’

오천그린광장 내일부터 3일간…전시·체험 공간 운영

온가족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축제가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2023 순천시 평생학습 생태박람회’를 오천그린광장에서 연다고 30일 밝혔다.

박람회는 ‘정원 위에 평생학습 여정(journey)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어지는 교육 정주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릴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에는 ‘평생학습 무한확장’이라는 주제로 전남평생교육 정책세미나와 개막식이 열린다. 이날 초대 가수 나윤권과 김동현이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학습 여정 5개 소개 공간과 평생학습 기관 단체·대학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인형극과 꼬꼬마 그림 그리기, 어린이 벼룩시장, 가족 골든벨, 멍 때리기(넋 놓기) 행사 등이 이어진다.

정원 안에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맨발 걷기(어싱), 요가, 책 소풍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장학생 36명 선발

구례군이 오는 9월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대학생 36명이다.

전남자연과학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장이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자 중에서 신청자를 추천한다.

구례군은 오는 10월 군 인재육성기금 심의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생 36명(최대 200만원)과 전남자연과학고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자 15명(최대 150만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